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관계부처합동 | | 보도설명자료 | |
| 보도일시 | 배 포 시 | 배포일시 | 2021. 6. 16.(수) |
| 담당과장 |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이차웅 (044-215-2810) | 담당자 | 김태순 사무관 tskim07@korea.kr |
| 담당과장 |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이영진 (044-202-7260) | 담당자 | 유병현 사무관 a3338@korea.kr |

제목: 1~15시간 취업자 증가만으로 5월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

<보도내용>

□ 5월 고용동향 관련 일부 기사에서 “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(+30.2만명) 위주로 5월 취업자가 증가(+61.9만명)하여 **고용의 질이 저하**”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

※ 관련 기사

- 조선일보 「주15시간 미만 알바도 취업자 통계에 넣고 고용이 나아졌다니」
- 한국일보 「고용 빠르게 회복된다 했더니...5월 취업자 절반은 초단시간 근로 '알바」
- 헤럴드경제 「고용質 추락...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명 역대 최대」

<기획재정부 · 고용노동부 입장>

□ 다음 내용을 감안할 때, **1~15시간 취업자 증가만으로 5월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**

❶ 5월에는 **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7.5만명 증가**하여, 15시간 이하 취업자보다 **증가폭이 두 배 이상** 컸습니다.

* 국가기관마다 전일제(Full-time) 기준이 상이하나 고용통계 목적으로는 36시간을 전일제 근무로 간주

* 5월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

: (0시간, 일시휴직)△59.8 (1~15시간)30.2 (16~35시간)14.0 (36시간 이상) 77.5

❷ 또한, 적정 근로시간대에 해당되는 **36~44시간 근로자도 역대 최대 수준**입니다.

* 36~44시간 근로자(만명) : ('21.1)1,170 (2)1,171 (3)1,207 (4)1,234 (5)1,240

❸ 코로나19로 늘어났던 **일시휴직자가 59.8만명 감소**하였습니다.

❹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**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월(+3.4시간)에 이어 5월에도 0.6시간 증가**하였습니다.